

메주꽃으로 일궈 낸 땀땀을 '결실'

전북중기청, 김용순전통식품 백년소공인 선정 현판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10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순창군의 김용순 전통식품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의 백년소공인으로 소공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공인의 성공모델로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판식에서 안남우 청장은 순창군 장류사업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및 업체대표를 포함한 지역 소공인들과 경영애로 등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23년 동안 한길을 걸으며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김용순 전통식품'에서는 단맛이 없는 달콤한 맛의 청국장과 보리고추장을 생산하고 있으며, '잡어와 화평치'로 만든 장어찌는 김대표만의 대표 아이템이다.

김용순 대표는 "힘든 일이지만 죽어 서도 고추장을 만들 것이다. 메주 띄우는 날은 내 가슴까지 뚫다"며 남다른 장류 사랑을 표현했다. 또한 "아들 내외가 가업승계를 이어 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라며 기쁨의 소회를 전했다.

이번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 인하 혜택 및 소상공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받는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임업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사업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제품·기술까지 향상사업 등 소공인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순창군의 '김용순 전통식품'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안남우 청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장인정신으로 15년 이상 제조현장에서 묵묵하게 일궈낸 땀의 결실로 백

년소공인으로 선정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업승계로 대대손손 번창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모집

도·경진원, 만 39세 이하 2년동안 도내 거주해야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에서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하 청년혁신가)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청년혁신가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도내 청년들을 취업하도록 해 청년들의 타 시·도 유출을 막고 각종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8~39세의 청년이며 지원 기간(2년) 동안 전북도 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번 청년혁신가 모집은 12명 가량으로 선발된 청년혁신가는 전라북도 내 12개의 사회적경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접수는 20일 13시까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http://청년혁신가.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모집 사업장 및 업무는 청년혁신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경진원 자치경제팀(063-711-2086~8)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도 농기원, "봄철 시설딸기 하우스 관리 철저" 당부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봄철 시설딸기 수확 후기 동안 적절한 보온과 환기를 실시하여 시설 내 온·습도를 알맞게 유지하고 고온기 과실 경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우스 관리 대책을 당부했다.

딸기는 전체 체중 중 생산액이 1위에 해당하는 고소득 작물이다.

3~4월은 딸기 수확 후기로서, 이때 하우스 내 주간 온도는 25°C 내외, 야간 온도는 5~6°C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간에 고온이 되면 과실이 물러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환기가 요구된다.

봄철 시설 하우스에서는 노지와 달리 추운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으나 밀폐된 환경 탓에 병해가 단시간에 빠르게 번져나갈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대표적으로 초봄에 시설딸기에서 발생하는 병으로는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꽃곰팡이병이 있으며, 이러한 곰팡이병들은 적절한 하우스 관리를 통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북농업기술원 김은지 연구사는 "시설딸기 봄철 재배시 적절한 하우스 관리를 통해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고 병해를 방지하며, 과실 경도를 증진시키는 등 후기 수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등 도내 8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 거점형 중소유통공동 물류센터 건립 지원

도내 중기 관련단체, 민주전북도당에 총선 중기 정책과제 합동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등 도내 8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두원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이인호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장, 이동근 이노비즈협회 전북연합회장, 오인섭 중소기업연합전북연합회장, 박병모 전북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채정복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명

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에는 어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간절히 바라며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 9대분야 261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특히 전북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북권 거점형 중소유통공동 물류센터 건립 지원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육성지원 및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지역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한 근거법 완화(지원대상 300인 이상 → 중소기업) △여성기업 전용 공제제도 확립 근거 마련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영의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통해 전북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예방 면 마스크

제작 취약계층에 무료 공급

순정축협, 마스크 부족 해결 위해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여 조합원과 취약계층에 무료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순정축협은 이를 위해 면 마스크 원단을 구입하고, 순정축협 사랑나눔봉사단(회장 순창: 이양순, 정읍: 김점례)은 순창여성회관과 순정축협 정읍지점 2개소에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마스크를 하루빨리 공급하기 위해 사랑나눔봉사단 회원 40여명은 마스크 5,000개를 일주일만에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순정축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스크 5,000개를 공급했다. 따라서 순정축협이 무료공급하는 마스크는 이번에 제작하는



순정축협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여 조합원과 취약계층에 무료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5,000개를 더해 총 1만개에 이른다. 고창인 조합장은 "마스크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순정축협

사랑나눔봉사단에서 정성으로 제작한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구마 모판 '흰비단병' 온·습도 조절로 줄여요

농진청, 관리법 소개... 못자리에 물 준 다음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환기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구마 육묘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피해를 주는 흰비단병의 관리 방법을 10일 소개했다.

흰비단병은 봄철 고온 다습한 조건의 못자리에서 발병하기 쉽고, 재배 기간 및 수확 후 저장 중에는 동근무늬병 형태로 고구마의 전 단계에 피해를 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씨고구마 파종 후 고구마 싹이 땅 위로 나오면서 흰비단병이 발병하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고구마 육묘는 조기 재배의 경우 2월 중순, 보통기 재배는 3월 중순에 하는데 보통 1개월이 지나면 고구마 싹이 땅위로 나온다.

흰비단병은 땅 속 온도 27°C, 습도 80% 이상의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못자리에 물을 준 다음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환기해야 한다. 이 병에 걸리면 땅 표면과 고구마 묘가 맞닿는 부분에 하얀색 실과 같은 균사가 생기면서 묘가 무르고, 심하면 식물체가 말라 죽게 된다. /김윤상 기자

특히 토양을 통해 전염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병이 발견되는 즉시 주변 땅과 함께 식물체를 파서 제거한다. 병이 많이 번졌을 때는 고구마 흰비단병 등록 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살포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한다.

흰비단병 방제의 시작은 병에 걸리지 않은 씨고구마를 파종하는 것이며, 특히 동근무늬병 육묘상에서 흰비단병에 감염된 묘가 삼식 되어 분발에서 발병하거나 수확 중 고구마에 생긴 상처를 통해 토양 중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침투하여 저장 중 문제가 되는 병에 걸리지 않은 씨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구마 묘를 생산할 때 토양으로부터 10cm 이상의 윗부분을 절단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노재환 소장은 "흰비단병은 고구마 못자리 관리 방법에 따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능가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더불어 효과적인 방제법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업무 마비 대비

전북은행, 본점 분리근무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마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본점 임직원 약 560명 가운데 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약 150명을 별도 마련한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직원의 감염으로 본점이 폐쇄될 경우 전체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업무 공간을 분리해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5개 시중은행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이날 기준 총 13명이며,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확진자가 다녀가 임시 폐쇄한 영업점은 전국적으로 16곳이다.

다행히 전북은행은 철저한 방역 및 예방시스템 덕분에 아직까지 폐쇄된 영업점은 없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 마비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JB GYM, 5일 안골지점, 6일 경원동지점에 본점과 분리된 별도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본점 인력을 분산 배치하는 등 비상사태도 업무가 가능

하도록 조치했다. 좁은 사무실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자칫 확진자가 나오면 결집을 수 없는 피해로 확산 될 수 있기에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근무시간에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본점 출입통제 강화 및 감염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차단, 본점 출입구 열감지 강화, 자율방역 실시, 점심식사시간 분리운영 등 코로나19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다.

영업점에서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출입문 손잡이와 ATM기, 현금금고를 수시로 소독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내신 대응이란 없으며,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안전한 금융시스템 제공과 고객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나무심기 행사 온라인으로 변경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묘목시장 활성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현장에서 묘목을 나누어 주던 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를 '그루콘'을 발송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여 추진한다고 안내했다.

그루콘이란 산림청 캐릭터 그루와 이모티콘의 합성어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으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묘목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무를 심는 국민참여와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 누구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나 모바일기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2차에 걸쳐 진행하지만 1개의 휴대폰 번호로는 1차와 2차 중 1회만 참여 가능하다.

캠페인 참여는 홈페이지(www.2020mytree.info)로 접속해 산림정책(산림자원) 조판) 나무 갖기 캠페인

에서 11일 오후 1시부터 1차 선착순 3,000명, 18일 2차 선착순 2,000명으로, 그루콘은 접수된 휴대폰 번호의 오류·중복 등을 검토한 후 접수 다음날부터 문자로 발송되며,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국 115개소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고 4월 10일까지 이용해야 한다.

이영선 산림경영과장은 "그루콘으로 묘목시장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그루콘은 1회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노출할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이용 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